

제3편

군포가 기억하는
연아,

군포가 사랑하는
연아

이영호 | 군포신문사 대표

나중환 | 중부일보 군포·의왕 담당기자

김연아 선수가 2008년 12월 14일 고양어울림누리 얼음마루에서 열린 2008-2009 ISU 그랑프리 파이널의 갈라쇼에서 열연하고 있다(IS스포츠 제공).





김연아 선수가 2008년 12월 12일 고양어울림누리 얼음마루에서 열린 2008-2009 ISU 그랑프리 파이널의 여자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열연하고 있다(IB스포츠 제공).

하나. 소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로



우뚝 서다

“한국 피겨 100년 역사상 최초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피겨 여왕(女王)을 넘어 여제(女帝)로 등극한 소녀”, “한국 피겨 역사와 세계 피겨 기록을 새로 쓴 선수”……. 김연아 선수를 수식하는 단어는 너무 많아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제대로 된 연습 전용 빙상장 하나도 없는 척박한 현실에서 불굴의 의지로 세계 1인자에 우뚝 선 그녀이기에 최고의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그 업적을 표현하기에 모자란다. 더욱이 그녀는 군포시에서 신홍초등학교, 도장중학교, 수리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 군포시로서는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피겨 요정을 넘어 피겨 여제로

1996년, 일곱 살의 작은 소녀가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소년체전 등 각종 국내대회를 휩쓸며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내더니 스케이트를 신은 지 불과 8년 만에 200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빙상연맹(International Skating Union) 주니어 그랑프리 2차대회에서 쇼트프로그램 1위, 프리스케이팅 1위로 종합성적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바로 김연아 선수다.

김연아는 2005년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1위, 2006년에는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에서 열린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1위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2007년 피겨 세계선수권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세계 최고점인 71.95점을 획득하여 피겨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고, 러시아 그랑프리 5차대회에서는 프리스케이팅에서 133.70으로 세계 최고점을 갱신하였다. 그녀는 ‘피겨요정’, ‘국민동생’으로 불리며 이후에 열린 국제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하면서 세계 챔피언임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2008년 김연아는 하나의 기적을 일군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쇼트프로그램 세계 최고점인 71.95점을 76.12점으로 갈아 치우고, 종합점수 207.71점으로 세계 최고 점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 피겨계가 '꿈의 점수' 라고 부르는 200점대를 돌파한 것이다. 또한 그녀는 피겨 전 종목을 통틀어 예술점수(PCS) 8점대 이상을 기록한 유일한 선수가 되며 세계 피겨계의 여제가 되었다. 2009년에도 그녀는 점프, 스핀, 스파이럴, 스텝 등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표현력으로 그랑프리 스케이트 아메리카에서 쇼트프로그램 76.28 점을 획득하여 다시 한 번 자신이 세운 세계신기록을 갱신했고, 그랑프리 트로피에릭 봉파르에서는 프리스케이팅 133.95점으로 역시 자신이 세운 세계신기록을 갱신했다. 현재 김연아는 기술점수(TES)와 예술점수 모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8년까지만 해도 동갑내기인 일본의 아사다 마오와 선의의 경쟁자였지만 2009년 시즌부터는 경기력에서 월등히 앞서 나가 경쟁자가 없는 상태로 오직 자신과의 싸움만이 유일한 맞수이다. 자신이 스스로 세계신기록을 세우고 그 신기록마저도 또 자신이 갱신했고,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세계 1인자임을 증명한 것이다.



김연아 선수가 2008년 12월 13일 고양아울림누리 얼음마루에서 열린 2008-2009 ISU 그랑프리 파이널의 여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열연하고 있다(B스포츠 제공).

'2008 Festa on Ice' 에서 만난 김연아

김연아 선수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면서 종종 아이스쇼에 출연하고 있다. 2008년 5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는 '2008 Festa on Ice' 가 열렸다. 이 아이스쇼의 주연이었던 그녀를 만나 보자.





제 3 편 군포가 기억하는 연아, 군포가 사랑하는 연아





제 3 편 군포가 기억하는 연아, 군포가 사랑하는 연아





제 3 편 군포가 기억하는 연아, 군포가 사랑하는 연아

은 국민의 소망, 금메달로 화답하다

2010년 2월 13일, 전 세계인의 축제인 밴쿠버동계올림픽의 막이 올랐다. 은 국민은 대표선수들의 연이은 메달 획득과 선전에 기뻐하며 한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한국 날짜로 2월 26일, 김연아 선수가 이틀 전에 치른 쇼트프로그램에 이어 여자피겨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하는 날이었다. 이날 그녀가 연기할 즈음, 도로에는 평소보다 차량 통행마저 줄었고, 어떤 이들은 너무나 떨린 나머지 TV를 보지 못하였다고도 한다. 그리고 그녀의 연기가 끝나고 점수가 발표되는 순간, 월드컵축구의 열기를 방불케 하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쇼트프로그램 78.50점과 프리스케이팅 150.06점을 합쳐 228.56점으로, 다른 선수들과 압도적인 점수 차이를 보인 것이다. 또 한 번 세계 기록이 경신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경기가 끝난 최종 결과는 당연히 그녀의 우승이었다. 은 국민의 소망과 기원에 그녀는 금메달이라는, 그리고 누구도 넘보기 어려운 기록으로 화답하였다.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싱글 쇼트프로그램('뉴시스', 2010년 2월 24일)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싱글 금메달 시상(『뉴시스』 2010년 2월 26일)

둘. 어린 시절의

기억 속으로



김연아 선수는 1990년 9월 5일에 부천에서 아버지 김현석과 어머니 박미희의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녀의 가족은 산본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군포시로 이주하였고, 이후 그녀는 신홍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1반에 배정받았다. 그 시절 앓던 소녀 김연아는 어떠했을까?

아빠와 연아가 쓴 편지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회사에 다니시느라 힘드시죠? 그리고 일요일마다 꼭꼭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아버지 생신 때 꼭 선물 준비할게요, 추석 때 외할머니댁에 다녀왔을 때 아주 재미있었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연아 올림.

사랑하는 연아에게

연아로부터 편지를 받으니 무척 기쁘구나. 아빠는 우리 연아가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 주길 바란다.

요새 매일 저녁 스케이트 타느라 얼마나 힘드니? 아빠는 우리 연아가 용케 열심히 즐겁게 스케이트를 타서 매우 대견하단다. 아빠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장 좋아하단다. 집에서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연아가 돼 주길 바란다.

아빠는 누구보다도 우리 연아를 사랑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 주길 바란다.

누구보다도 연아를 사랑하는 아빠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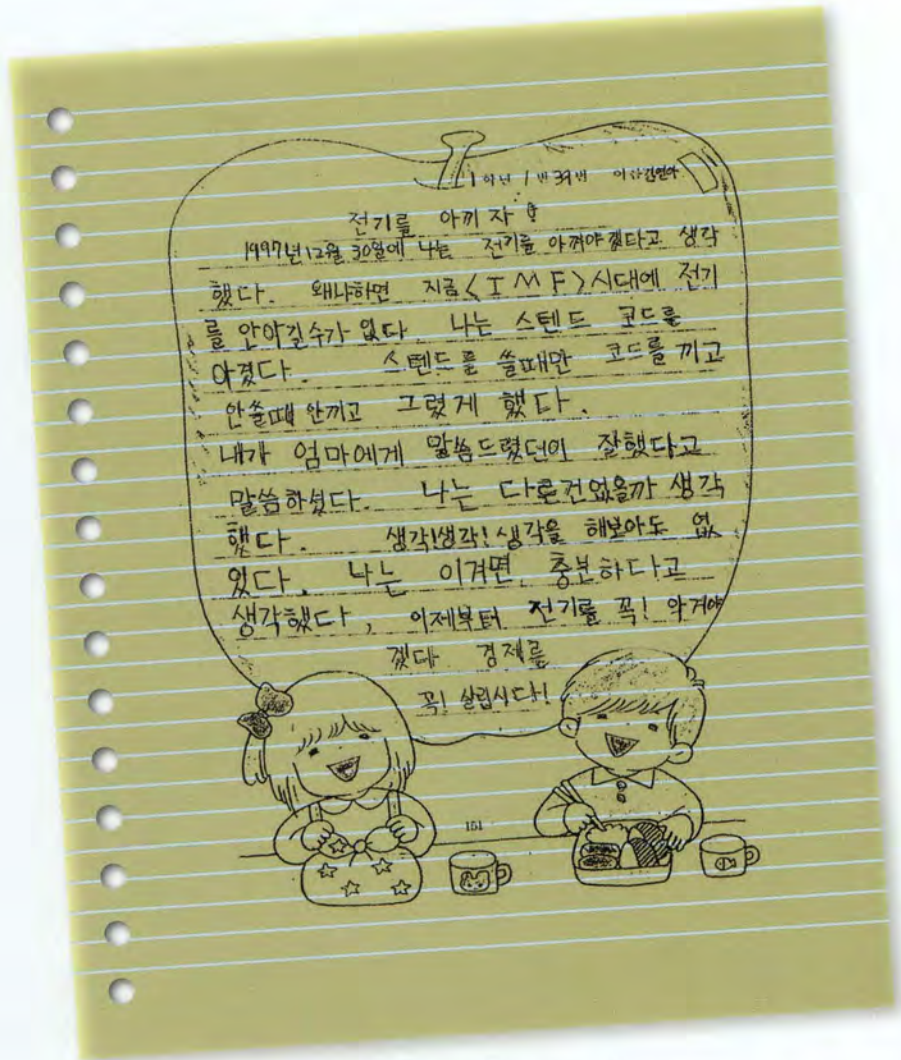


어린 시절의 김연아 선수와 가족들

김연아 선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와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이다. 이 편지는 당시 학급문집에 실렸다. 어느 아버지와 딸처럼 정이 묻어나는 편지다. 짧지만 구체적으로 "일요일마다 꼭꼭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아버지 생신 때 꼭 선물 준비할게요."라는 표현은 초등학교 1학년답다. 어린 딸을 가진 아버지라면 누구나 기대하는 효도이지 않은가? 그때 어린 소녀는 아버지의 생일에 어떤 선물을 했는지 궁금하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족들과 물놀이를 가서



전기 절약을 주제로 쓴 경제살리기 실천 다짐 글

수줍음을 많이 타던 평범한 소녀

당시 학급문집에는 학생들의 자기소개도 실렸다. 그 내용을 보니 피겨의 여제가 된 김연아 선수도 연예인을 좋아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평범한 소녀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 1학년 김연아는 세종대왕을 존경했고, 당시 대표적 아이돌이던 HOT에 환호하고, 분홍색과 장미, 토끼와 사슴을 좋아했다. 그리고 또래들처럼 우유와 음료수, 그리고 과자를 좋아했지만, 특이하게도 물 국수는 싫어했었다. 그렇지만 음료수와 과자를 마음 편히 실컷 먹지는 못했다. 스케이트를 잘 타기 위해 음식 섭취를 조절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한 노력과 자기 관리가 지금의 피겨 여제를 탄생시키는 기초가 됐으리라.

그런데 그녀는 자기소개를 하며 장점이 없다고 적었다. 당연히 피겨스케이팅을 장점으로 적었을 법한데, 좋아하는 운동으로 스케이트를 꼽았을 뿐이다. 아마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자신의 단점으로 '수줍을 많이 탄다.'고 적은 것처럼 일종의 수줍음 때문이었으리라.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김연아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절약을 생활화했던 것 같다. '돈 10만 원이 생기면?'이라는 질문에 '저금을 해서 아껴 쓴다.'고 적은 것을 보면 집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절약 정신은 그녀가 초등학교 1학년 당시 작성한 경제 살리기 실천 다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코드를 빼놓는 일 포함. 일찍부터 에너지 절약과 탄소발생량 감소를 위한 생활을 실천하였다니 그녀는 녹색성장 시대를 선도하는 '센스장이다'.

"HOT 총추던 연아가 지금도 눈에 선명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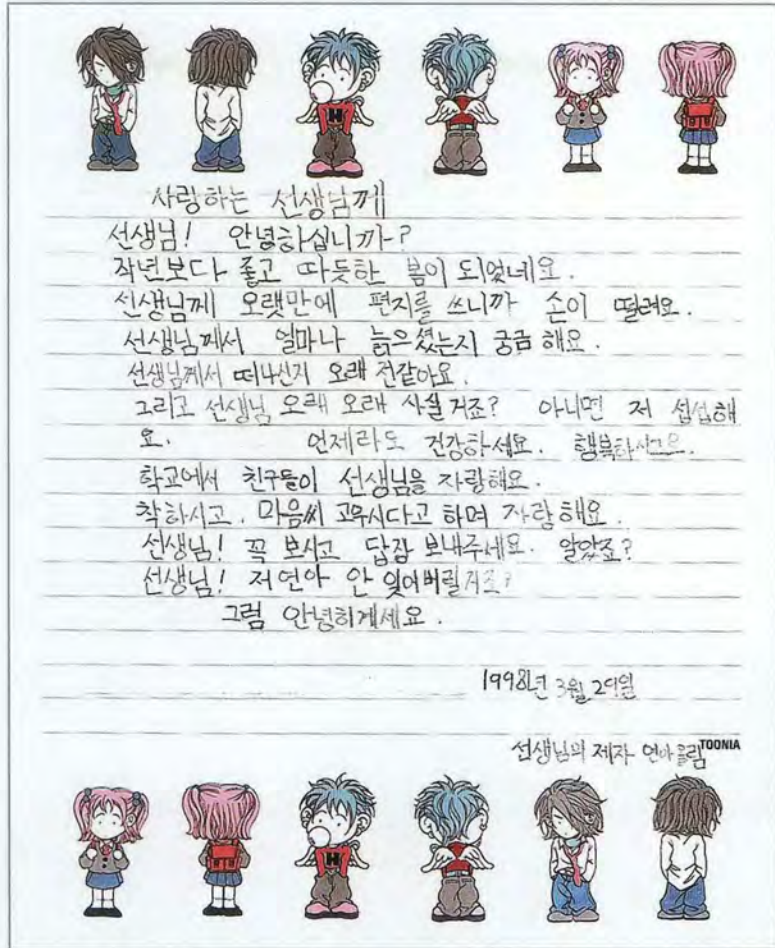
김연아 선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그녀를 사랑하는 이들 중에 교직에 몸담았던 유명자 선생님이 있다. 정년퇴임 후에도 봉사단체 늘푸른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

는 윤 선생님이 김연아 선수를 만난 건 1997년 봄이다. 당시 신흥초등학교 교사로 1학년 1반 담임을 맡았는데, 그 반에 김연아 선수가 배정된 것이다. 1998년에 다른 학교로 전근하는 바람에 두 사람이 사제지연을 맺은 기간은 비록 1년에 불과하지만, 그 인연의 흔적은 아직도 소중히 간직되고 있다.

신흥초등학교 1학년 1반 39번 김연아. 당시 담임이던 윤 선생님의 기억에 김연아는 "정미 많은 아이", "크게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자꾸 눈이 갔던 예쁜 제자"였다. 그래서일까? 윤 선생님에 대한 그녀의 마음 또한 특별했던 것 같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담임선생님께 쓴 편지

사랑하는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셔요
 선생님 벌써 반학이라서 아쉽군요
 그동안 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2학기때도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에서 독서기록장도 많이 쓰고 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하고 또, 편지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19일날
 여 계곡에 가요.
 선생님은 무엇을 할것인지 궁금해요
 나는 계곡에서 두밤 자고 물거예요
 나는 계곡에서 재미있게 놀다 물거예요
 그리고 방학 끝나서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1997년 7월 18일 김연아 올림



전근을 가진 윤명자 선생님께 쓴 편지

다. 여름방학을 맞아 한 달 넘게 얼굴을 대하지 못하게 되자 아쉬운 마음을 담아 “선생님 벌써 방학이라서 아쉽군요.”로 시작하는 편지를 쓴 것이다. ‘김연아 올림’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며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는 나름 성숙(?)한 면모를 보였지만, 편지 중간에 “나는 계곡에서 두 밤 자고 올 거예요.” “나는 계곡에서 재미있게 놀다 올 거예요.”란 문구를 보면 역시 어린 소녀티가 넘친다.

또한 2학년이 된 김연아는 윤 선생님이 용호초등학교로 전근을 가자 그리운 마음에 “선생님께 오랜만에 편지를 쓰니까 손이 떨려요.”라며 안부편지를 보냈다. 편지 내용 중 “선생님께서 얼마나 늙으셨는지 궁금해요.”라는 엉뚱한 물음 뒤에 이어진 “선생님 오래오래 사실 거죠? 아니면 저 섭섭해요. 언제라도 건강하세요.”란 글귀는 이내 얼굴 가득 웃음을 짓게 만든다.

이렇듯 초등학교 1학년 김연아가 남긴, 10년도 넘은 옛 추억의 흔적을 윤 선생님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그 때문에 윤 선생님은 2009년 4월에 다수의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녀는 먼저 나서서 "내가 김연아 선수의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이었어요."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지만, 김연아 선수의 기사나 사진이 실린 신문, 잡지, 포스터 등을 모은 스크랩북에는 제자에 대한 사랑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김연아 선수가 경기에 나갈 때마다 좋은 성적을 내기를 기원하고, 늘 행복하기를 바라는 윤명자 선생님에게 '제자 김연아'에 대한 추억과 바람을 들어 봤다.



스크랩북을 들고 흐뭇한 웃음을 짓는 윤명자 씨

Q 지금 김연아 선수는 매우 활동적으로 보이는데, 그때는 어땠나요?

학생기록부에 '내성적이고, 차분하다. 글을 잘 쓴다.' 고 적은 것이 기억납니다. 피겨대회에 나가기 위해 수업을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연아는 평상시 매우 성실하고 조용히 수업을 듣는 아이였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말 잘 듣는 모범생' 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담임이었을 때는 수업이 끝나면 곧장 피겨 연습을 하러 가곤 해서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말이 별로 없는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다만, 같은 반 아이들과 양로원에 위문공연 갔을 때는 연아가 또래아이들과 다름없다는 것을 느꼈죠. 그때 당시 유행했던 HOT 춤추던 연아가 지금도 눈에 선명해요.

Q 김연아 선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초등학교 댄 체격이 작고 연약해 보이는 연아가 피겨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아는 피겨를 매우 재미있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성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연아가 세계 최정상에 있더라도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선 초심을 늘 간직했으면 합니다. 또 연아는 군포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희망을 주니까 연습도 잘해야겠지만 건강 역시 잘 챙겨야겠지요. 일

전에 연아가 아프단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한번 만나 격려도 해 주고 싶지만, 바쁜 연아에게 부담을 줄까 걱정돼 찾아가기 꺼려지네요. 그래서 연아의 기사나 사진을 모으며, 늘 잘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연아를 만나 옛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연아야 항상 파이팅!!! 내가 너의 답입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

'국가 선수'의 꿈, 그 시작

지금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된 김연아, 그녀는 언제부터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 1997년 월트 디즈니 아이스쇼단이 한국을 찾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알라딘' 공연을 선보였다. 이 아이스쇼가 한국 피겨, 아니 세계 피겨의 여제를 탄생시키는 데 한몫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당시 여덟 살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어린 소녀는 이 공연을 보고 '알라딘'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일기를 썼다고 한다.

토요일날 우리 가족은 올림픽공원에 가서 아이스쇼를 보았다.

그것은 알라딘이었다.

아이스쇼는 1부, 2부가 있었다. 눈이 나빠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안경을 쓰고 가서 다행이었다.

아이스쇼를 보고 나서 나도 스케이트를 열심히 타서

국가 선수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알라딘 공연을 보고 쓴 일기의 그림

어린 소녀는 은반 위에서 펼쳐지는 마술과 환상의 세계를 보고, 한국 피겨를 대표하는 '국가 선수'가 되어 그 마술과 환상을 스스로 재현해 내기를 마음먹었나 보다. 그로부터 8년 후인 2005년, 도장중학교에 다니던 그 소녀는 주니어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며 자신이 어렸을 때 느꼈던 은반 위의 마술과 환상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일기에 쓴 꿈이 현실로 이뤄진 것이다. 이후 우리나라에는 '김연아 키드'라고 불리는 수많은 피겨 꿈나무가 자라나고 있다.



신흥초등학교 시절 여름 전지훈련



도장중학교 시절 국제대회에 참여하여



함께 수상한 아사다 마오 등과 함께

제 3 편
군포가 기억하는 연아, 군포가 사랑하는 연아

셋.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군포와 과천의 총성 없는 전쟁

김연아 선수가 세계무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2005년, 군포시와 과천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국내대회를 석권한 데 이어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그녀를 서로 자기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서였다.

당시 실내아이스링크를 보유한 과천시에선 '연습장 무료 제공에 훈련비 고정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모두 군포에서 졸업한 김연아 선수와 그 가족의 애항심을 꺾지는 못했다. 더욱이 군포시에서도 시장과 체육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허봉규 수리고등학교 교장 등이 직접 나서 그녀를 집에서 가까운 수리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포시는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꿈나무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수리고등학교는 '김연아가 수리고에 진학하면 전용 빙상장이 포함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다소 무리한(?) 약속까지 하였다.

김연아 선수가 2006년에 수리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시니어 무대에 데뷔하여 본격적인 우승행진을 하면서, 잊지 못할 일도 여러 번 발생했다. 수리고등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중앙언론사 기자들이 김연아 선수 우승 소식을 전하면서 '김포 수리고' 혹은 '안양 수리고'로 표기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 이에 당시 군포시청의 김진호 공보계장은 모든 언론사에 협조 요청을 하여 '군포 수리고'로 정정하기도 했다. 전 세계에 타전되는 김연아 선수 기사에 항상 '군포'가 등장하면서 군포시의 도시 이미지가 그만큼 상승한 것은 당연지사였다.

현재 수리고등학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빙상의 메카가 되어 가고 있다. 현종민 현 교장이 빙상부를 창단하면서 '제2의 김연아'로 불리는 광민정 선수를 비롯하여 김민석, 김현정, 장혜승 선수 등이 이곳에서 우리나라 빙상의 유망주로 성장하였기 때문

이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빙상장 건립은 무산되었지만, 2006년 12월에 수리고등학교에는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었다. 2007년 5월에는 체육관 내에 김연아 선수가 사용하던 물품들을 전시한 기념관도 마련되었다. 이 기념관이 문을 여는 날, 그녀는 군포시민을 위해 사인회를 가졌고, 많은 시민이 그녀를 보기 위해 수리고등학교를 찾았다.



제 3 편 군포가 기억하는 연아, 군포가 사랑하는 연아

수리고등학교 진학 결정 기자회견 후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2005년 12월 27일)

이 무렵 김연아 선수는 치아를 교정하고 있었다. 치아 교정 후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린 시절 모습이 되살아났다.



김연아 선수의 팬사인회(2007년 5월 4일)



수리고등학교 내 김연아기념관의 전시품



그녀 뒤에 어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이야 김연아 선수의 소속이 '고려대학교'로 표시되지만, 2009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만 해도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그녀의 이름에는 '군포 ○○○학교'라는 자막이 늘 뒤따랐다. 그녀는 군포에서 신흥초등학교, 도장중학교, 수리고등학교를 차례로 졸업한 군포의 딸이자 자랑스러운 인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한 달 정도 지난 2009년 4월 초에 정말 생뚱맞은 광고가 모 중앙 일간지에 게재되었다. '김연아를 고려대가 키웠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였는데, 군포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어처구니없어 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해야겠다. 세계 피겨의 여제 김연아 선수는 자신의 피땀 어린 노력과 어머니 박미희 씨를 비롯한 가족과 여러 코치의 도움으로 성장했다고, 그리고 그녀에 대한 군포시민의 사랑도 미약하나마 한몫했다고, 특히 오늘날의 김연아 선수가 있기까지 어머니 박미희 씨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1년 365일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서울 태릉선수촌으로, 다시 과천실내링크장으로 옮겨 연습하는 딸을 그림자처럼 동행했다. 그래서일까? 김연아 선수에게 엄마는 단순한 부모가 아니다. 때론 엄한 코치이고 때론 친구이기도 한, 분신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언니나 아빠도 집안일 챙기기 등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세계적인 피겨스타를 키운 가족'다운 면모를 보여 줬다고 한다.



어머니 박미희 씨와 함께



시청을 방문한 후 송기은 후원회장과 함께

군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날 세계 피겨판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김연아 선수이지만, 그간의 과정이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다. 점프가 주요 훈련요소인 종목 특성상 그녀는 줄곧 다리와 허리 부상에 시달려야 했고, '악셀' 이니 '쇼트프로그램' 이니 '스파이럴' 이니 하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아는 국민이 1%도 안될 정도로 비인기종목이던 피겨스케이팅을 하면서 겪어야 했던 서러움도 컸기 때문이다. 김연아후원회의 송기은 회장이 전하는 바로는, 피겨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가의 지원도 거의 전무해서 국제대회에 출전할 때면 보호자, 코칭 스태프까지 자부담으로 동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재정난은 그녀가 2005년 세계 주니어선수권대회와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하기 전까지 이어져, 때로는 운동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네티즌들은 김연아 선수의 근황을 인터넷상에 적극 소개하면서 관심을 불러일

으키는 데 일조했고, 잘못된 정보에도 적극 대응했다. 지역사회에서도 그녀에 대한 본격적인 후원을 시작했다. 그 결과, 2006년 3월 수리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김연아 후원회'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해 4월에는 원광대학교 산본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이 합동으로 '김연아 선수 평생 무료 진료 협약식'을 체결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여기에 군포시도 장학금을 지원하며 격려하였고, 경기도교육청도 김연아를 글로벌인재로 선정하여 그녀의 성장을 지원했다. 송기은 후원회장은 "고가의 장비와 훈련비가 많이 들어가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한 가정이나 학교만의 힘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역사회에서 뜻있는 분들이 적극 나서서 작은 정성들을 모은 덕분에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피겨스타로 성장하기까지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회상했다.

김연아 선수는 2009년 수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또한 각종 대회와 해외훈련 때문에 군포시에 머무는 시간은 거의 없지만, 그녀는 여전히 군포시민이다. 그렇기에 그녀가

군포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시민이 자랑스러워하고, 그녀를 보기 위해 서는 내리는 비도 마다하지 않는다. 2009년 5월 2일, 군포수리수리마법축제 첫날에 그녀는 군포시와 내고장 군포사랑운동협약식을 갖고, 짬을 내어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는데도 많은 시민이 그녀의 모습을 보기 위해, 카메라에 그녀의 얼굴을 담아 가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

군포시와 시민들이 김연아 선수의 성장에 부족하나마 심적·경제적으로 후원했고, 그녀를 가장 많이 지지했고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리고 그녀는 군포시의 이미지 고양에 큰 기여를 하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제 군포시와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그러하니 김연아 선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전 국민이 너나없다 하더라도 어디 군포시민만이야 하겠는가.

김연아, 당신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군포의 명예를 드높인 군포의 딸이자 자랑입니다. 어찌 군포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군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고장 군포사랑운동 협약식에서(2009년 5월 2일)



김연아 선수와 그녀를 보기 위해 빗속에 모인 축제 인파



제 3 편 군포가 기억하는 연아, 군포가 사랑하는 연아